

저의 일은 있나요?

자유전공학부 김근영

기계가 처음 개발되고 산업에 투입되었을 때에는 생산량의 발전과 같은 긍정적인 일만 일어날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정확성, 속도의 면에서 기계가 가지는 장점은 엄청나기 때문이다. 때문에 사람들이 하기엔 지루하고 소모적인 반복적인 작업들은 기계로 대체되었다. 사람들은 자신이 조금 더 편해졌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기계가 발전해서, 정보를 다루기 시작했다. 컴퓨터가 똑똑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던 일들을 점차 컴퓨터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이들은 귀찮은 일들을 빠르게 해결했고, 정보를 순식간에 찾아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임금을 요구하지 않았다. 전기를 계속 보급해주며 가끔 고장나면 수리해주는 정도로, 매우 성실한 일꾼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래서 겁이 나기 시작했던 것 같다. 기계들은 ‘사람보다’ 나은 면모를 보였다. 더군다나 그들은 계속해서 발전했다. ‘무어의 법칙’을 따라 기계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지금도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발전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진다면, 과연 내일은 어떤 엄청난 기술이 나타나 또 많은 사람들을 대체하게 된단 말인가.

물론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더 나은 면모를 보이는 곳이 있다. 사람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일(예를 들어 서비스업과 같은 심리적 분야를 다루는 업종)이나, 직관 등을 통해 인식해야 하는 일(예를 들어 운전하거나, 오랜 경험을 통해 판단해야 하는 경영 등의 업종) 등에서는 아직까지 기계의 힘이 미치지 못했다. 컴퓨터와의 채팅을 통해 상대가 인간인지 기계인지 구분하는 ‘튜링 테스트’의 경우에도 통과한 기계는 없었다. 그리고 예술을 비롯한 창작 분야에서도 사람은 두드러지게 앞서나가고 있다. 아직까지 창작하는 기계는 나오지 않았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런 사실만으로 사람들은 안심할 수 없다. 일단 앞서서 말했듯 기계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으며, 그 속도는 점점 가속을 붙이고 있다. 과거 우리는 컴퓨터가 우리를 체스로 이길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패턴인식을 통한 서류처리를 통해 지식인의 정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변호사의 서류검토를 대신할 수 있을 거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일이 사실로 일어나고 있다. 과연 사람과 소통하는 기계, 수많은 사례를 바탕으로 직관 대신 가장 나은 선택을 하는 기계,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해 창작하는 기계는 불가능할까? 그것은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학습’을 통해 거의 대화 수준으로 채팅이 가능해진 ‘심심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있고, 정형화된 멜로디를 기계가 적당히 조합하여 음악을 만드는 경우도 존재하니 말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영화 ‘아이, 로봇(2004)’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온다. 주인공 남성이 로봇에게 ‘로봇이 교향곡을 작곡할 수 있어? 로봇이 빈 캔버스를 아름다운 걸작으로 바꿀 수 있냐고.’ 하고 말하자, 로봇이 ‘넌 할 수 있어?’ 라고 반문한다. 그렇다. 기계와 달리 인간은 정형화되어있지 않다. 모든 기계가 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면 인간은 그렇지 않고, 고숙련자와 저숙련자, 슈퍼스타와 일반인이 나뉘어있는 것이다. 때문에 비록 인간이 앞서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정확히 말하면 ‘소수의’ 인간만이 앞서있을 뿐, 기계에 이미 뒤쳐진 사람들도 많은 것이다.

그 증거가 책에서 나오는 표에 나와 있다. ‘기계와의 경쟁’ p.88에 나온 표에 따르면 경우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고능력 인재들의 수입은 증가했지만, 그 외 저학력의 사람들의 임금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소득의 불균등에는 기계가 일조한바 역시 있는 것이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개발한 기계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 인간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기계를 물리칠 수 없다면, 어떻게든 사람이 살아갈 길을 모색해야 한다.

‘기계와의 경쟁’에서는 두 가지의 핵심적인 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두 가지 방법 모두 큰 한계점이 도사리고 있다. 첫 번째 해결책은 구조적 혁신, 즉 ‘창조적 기업가’를 부르는 것이다. 기계의 특성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도출해내는 방안을 뜻하는데, 최근의 페이스북,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등을 말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청년 창업 지원금을 대폭 늘려 이러한 방안으로 실업률을 낮추려고 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 책에서도 나왔지만, 이것은 한계점이 너무나 명확한 방법이다. 이것 역시 소수의 창의적인 인재들이 기술적인 능력을 갖추었을 때나 돌파구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인 것이다. 또한 청년 창업의 경우 실패율 또한 무척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세상에 혁신은 중요하지만, 모든 이들에게 그런 혁신을 일으키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결국 일반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돌려말하는 것 같다.

두 번째 해결책으로는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향상하라는 것이다. 즉, 인간이 기계보다 앞선 부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특히 정보통신 기술 등을 통해 지식을 보급하면 교육에서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 효과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과거와 달리 이제 우리는 굳이 지식인을 찾아가 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없어졌다. 컴퓨터를 통해 우리는 다양한 지식을 맞춤형으로 습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지식인들 사이의 교류도 강화되어 집단지성의 실현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사실 이 방안도 실질적인 일자리의 증가는 가져오지 못한다. 오히려 나는 고학력 실업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앞선다. 아무리 배워도, 기업의 TO는 한정되어 있고, 일년에 뽑는 변호사의 수도, 의대생의 수도 정해져 있다. 이 모든 것은 성공하느냐의 여부를 아직 따지지 않고 논하는 것이다.

기계와의 공생은 불가능한 것일까? 정녕 우리 사회는 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빈자로 나뉘어 운명이었던 것일까? 영화 ‘매트릭스’에서 나왔던, 기계가 지배하는 세계는 머지않아 들이닥치는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사회가 내가 죽기 전에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 뿐일까?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을 얼마나 슬플까!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과 예술가들 외에는 전부 어떤 일도 하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특히 인문계 출신의 사람으로써 나는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없었다. 이공계, 특히 공학 계열은 애초에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었으니 별 걱정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점점 더 기계적으로 대체되어가는 인문계의 미래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정보도 기계가 더 잘 다루고, 사회적 변수의 변동을 바로 파악이 가능하다면, 사람은 기계가 모아놓은 것을 정리하는 또 다른 기계가 될 것 같다는 상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책의 저자의 의견을 참고하고 위에서 얘기했던 한계점을 보완하여 이 사회 속에서 기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았다.

먼저 첫 번째로, 교육 방면에서 특히 기계에 대한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존할 대상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이후로 어떤 일에 종사하더라도 기계와 협업하게 될 것이다. 이미 기업에서도 서류작업은 컴퓨터로 이루어져 있고, 그 외 산업현

장에서도 컴퓨터를 비롯한 기계는 전체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기계를 다루어야 할 일은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기계 자체를 만들거나 수리하는 정도의 지식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분야에서 기계를 다루는 능력은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보편적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우선 고속련 노동자와 저속련 노동자 사이에 크게 자리 잡은 기술 사용 능력의 차이를 메꾸어줌으로써 둘 사이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계에 대한 공부 없이는 기계가 어떤 일을 하며,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고 그것을 인간은 어떻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다. 때문에 이러한 공부가 이후의 기계와의 공존에서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정부에서는 사람을 좀 더 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 말 자체는 매우 모호하지만, 책의 내용 중 '기술을 사용하는 것 보다 고용을 더 매력적으로 하라.'라는 말에서 착안한 것이다. 기업은 이윤을 원동력으로 움직이는 사회이기 때문에 임금문제 등을 생각해서도 가능한 한 사람보다 기계를 더 많이 고용할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것이다. 복지의 차원에서, 정부는 기업으로 하여금 인적 자원을 사용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책에서 예시를 들자면, 기업에 일정수의 노동자를 뽑도록 TO를 정한다든지,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는 회사에 우대적인 정책을 둔다든지 하는 것이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의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창의적 산업의 증진이 필요하다. 이것은 아직까지 기계가 해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가장 큰 인간의 강점인 '창의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실제로 기계의 능력은 대단하지만 그 기계를 움직이게 만드는 로직은 전부 사람이 만든 것이다. 기계 자체를 디자인한 것 역시 사람이고, 그 기계를 어떤 분야에 적용할지 결정하는 것 또한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어떤 기계적 플랫폼이 있을 때 그 속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 역시 사람이다. 즉, 콘텐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인간이 점유하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기계는 같은 일을 수행하는 것은 뛰어나지만, 아직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창의적 산업-예술 산업뿐만 아니라, 기계를 통한 다양한 사람들의 일에 대해 투자함으로써 사람들이 우위에 서는 분야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확실히 인간의 미래를 보장해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이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만약 확실한 대책이 있었다면, 당장에 정부에서 이를 시행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안타깝게도 이런 대책들은 미래의 인재들, 즉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대책이 될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기계에 의해 일자리를 빼앗긴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되기 어렵다. 특히 실업난에 시달리고 있을 저속련 노동자들의 경우, 그들이 자발적으로 기술을 익히거나 배우는 데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직업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들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세심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명화가 더 진전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일은, 기계를 인간의 주인이 아닌 노예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모색해온 방안들의 기초가 되는 생각이다. 그런데 이 말은 1922년, 거의 100년 전에 헨리 하브록 옐리스라는 사람이 한 말이었다. 이는 즉, 기계를 인간의 노예로 두어야 한다는 의지, 혹은 위기의식이 오랜 옛날부터 계속 있어온 생각이라는 것이다. 단순히 '노예'를 단어 그대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래 전 이미 실패한 것 같다. 더 이상 기계는 인간보다 하위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워, 우리는 기계와 '공존'하고 '협업'하는 길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계는 분명 노예보다 상승된 지위를 갖고 있다. 그러나 '노예'는 신분의 의미로 쓰이지 않았을 것이다. 위의 말은 기계를 이

용하느냐, 기계에 이용당하느냐, 가 관건인 것이다. 기계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고 계속해서 엄청난 발전을 해오기에, 인간은 조금 당황한 것이다. 하지만 기계는 여전히 인간의 피조물이고, 인간이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것임이 확실하다. 이제 인간은 기계의 눈부신 발전에 대처해야 한다. 인간이 주체적으로 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닦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할 '위대한 일'이 될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기계로 인해 자신의 일자리를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이 있다.'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길이 될 것이다.